떡 본 김에 드리는 제사는 무효다

(레17:1~1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3.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8.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떡 본 김에 드리는 제사는 무효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떡 본 김에 드리는 제사는 무효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속담의 뜻은 '기회가 좋을 때에 해야 될 일이나 벼르고 있던 일을 해치운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소매 긴 김에 춤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옷소매가 길어서 손동작을 할 때 옷소매의 펄럭거림이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매가 긴 옷을 입은 김에 춤을 춘다는 뜻이고 '떡 본 김에 굿한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응용되고 가리키는 의미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이 생긴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일 년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부모님과 조상님을 모

시는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이 제사가 제대로 치러지려면 밥, 탕, 떡, 전, 적, 나물, 김치, 과일, 포, 술로 열 가지의 제수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옛날에 빈궁한 삶을 살았던 서민들에게 있어서 열 가지 제수를 마련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형편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잔치 뒤 끝에 남은 떡을 돌리는 바람에 떡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만 며칠 뒤에는 부모님의 제삿날입니다. 한국전통 제례음식 중에 다른 것은 못해도 떡만 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떡이 중심인데 제삿날까지 기다리면 떡이 변하거나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먹고는 싶지만 다른 제수는 장만할 수도 없으므로 떡이 따끈따끈하게 손에 들어왔을 때 앞당겨서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인데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효심이 좀 있는 자녀들 같으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사정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제사의 대상인 조상에게 맞추어진 제사는 분명히 아니고 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편의에 맞추어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음식을 먹을 조상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간혹 무당들이 무슨 증조할아버지의 음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지 진짜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여간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꼬집어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편의에 맞추어진 제사이지 제사를 받아들이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도 떡 본 김에 드리는 제사는 무효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면 더 좋을 본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용은 소,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 잡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 잡는데 굳이 이 얘기나 나오는 이유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제사물로 쓰이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루나 사슴도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으로 볼 때 먹어도 되는 짐승인데 노루나 사슴 같은 것을 잡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 때 쓰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식용을 위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회막의 번제단 북편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잡게 하고 화목제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걷어내서 태우고 희생제물의 뒷다리와 가슴부분의 몫을 거제(들어서 드리는 제사)와 요제(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제사장에게 돌렸는데, 식용으로 잡을 때는 피를 뿌리고 기름을 걷어내서 번제단에서 불로 살라 화목제로 드리되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전부 당사자가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생활 중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지낼 때

에 지킬 수 있었던 규례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팔레스틴 전역에 흩어져 살 때는 북쪽 끝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야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싸서 집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므로 신12:15절에 이 규례가 완화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나 통할 수 있는 한시적인 것 때문에 이 규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생활을 통해서 선민다운 체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소는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 양이나 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잡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속의 의도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성막에서 잡으라고 하십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제사 때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단지 식용을 목적으로 잡아서 불에 구워 먹으려다가 생각하니 고기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에 맞추어서 말씀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삼상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아서 왕이 된지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와서 진을 칩니다. 그때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였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별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선지자가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떠나기 시작하니 사울의 마음이 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나무라면서 이 일로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자기가 정신적 지주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도로 드려지는 제사가 부수적인 일로 따라붙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 한 달 뒤, 두 달 뒤에 그렇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딱 제수가 있으니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봐왔던 것이 있었어요. 우상들에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쭉 볼 것이고 어깨너머로 배운 제사 드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내가 식용으로 먼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 필요

에 뒤따라가는 부수적인 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필요가 앞서가고 그 필요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회막의 번제단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엄한 규정을 내리십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사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사의 변질을 막으시는 의도로 번제단이 있는 회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변질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속죄제사 얘기와 아사셀 얘기를 했어요.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 선민들이 그동안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어머니에게는 자식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장로님에게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로 들어가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사업체나 자식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여놓은 자식과 마음속에 들여놓은 사업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나가서 마음으로부터 결별을 하는데 아주 비장한 절차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방법이 또한 제사로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상번제의 의미가 죽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부수적인 차원에서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보내고 사는데 살다보면 또 들어오므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무효제사이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경우에는 본문에 보니 그렇게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는 것으로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인데 끝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끝나고 있는데 끝남을 주님께서 받아 챙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올바름을 가늠하는 기준은 번제단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제사도 드리고 화목제사도 드리고 온갖 제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번제가 바로 이 세상 것을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보장되는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인하는 죄와 같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에 대해 죽음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므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내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앞선 삶의 현실의 필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선민의 삶의 초장에 못을 박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 대해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일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지금도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므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건강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돈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돈에 대한 죽음, 건강의 결핍에 대한 죽음이 있지 않으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속죄제사의 의미가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연관돼서 나옵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명(生命), 한자 그대로 생을 명령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홀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살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인격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자식을 들여놓은 것이 생명을 먹은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생명으로 자식을 먹고 돈을 먹고 자식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아요. 사업을 먹어서 사업 때문에 삽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먹고 목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말과 살아있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명령되어져야 하는 곳인데,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생명을 먹어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이유를 스스로 채택하는데 이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고 스스로 선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뒤로 맞춰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니까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목사님! 참 이상해요. / 뭐가 이상합니까? / 저는 십자가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사

실 굉장히 걸림이 되고 불편합니다. 저는 솔직히 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의 신입니다. 종교심이 아주 두터울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제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 왜? 그러냐고 물어요. /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도 70억 중의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먼저 떠올리지 않는 한 마음의 지성소에는 반드시 이 세상 것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 세상 것이 들어간 상태로 다시 말하면 내가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꿀꺽 삼킨 상태에서 그 생명이 나를 명령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주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고, 내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만이 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고 오직 주님의 죽음만이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부수적으로 찾게 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진리란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상입니다. 생명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여놓아도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먼저 들여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속죄의 의미가 있고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소제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일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도달할 수 있어서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또 모셔 들여질 수 있고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으로서 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한 생명의 존재가 예수님이시므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아니면 성막의 구성 모양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도달하려면 진짜 내 마음이 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무효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막의 모든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므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함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백 날, 천 날 부르고 끊임없이 부르고 이어서 부르고 자면서 불러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깁니다.

'떡 본 김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이 세상의 삶에 나의 형편이 앞선 상태에서 뒤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내 형편에 맞춰진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형편은 내 마음에서 죽어야 되고 관심거리가 아니라야 됩니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건강과 돈 문제에 제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니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갖는 의미도 더 정확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로 세 번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사십일 작정기도를 세 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다 보니 이 병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추구되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음식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이고 화목제로 배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짐승을 식용으로 잡을 때조차도 성막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제사가 세상일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부수적인 일로 변질되고 전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추구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처럼 앞서가는 내 형편에 맞춰진 하나님 찾음이 중단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형편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찾음이 더 우선이 되고 오히려 세상일들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